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국민소득 증가 및 경제의 불안요인

- 한국은행의 2010년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(GNI)은 3년 만에 다시 2만 달러대로 진입했으며 경상수지는 흑자 행진을 이어감.
  - 1인당 국민소득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0년 국내총생산(GDP)의 상승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만 759달러를 기록함.
    - 명목 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1.5% 증가한 1조 143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2007년 1조 493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대를 재 기록함.
    - 국민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소득은 전년대비 5.5% 증가해 2002년 7.5%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실질 국내총생산도 민간 소비, 설비투자,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6.2% 성장함.
  - 2010년 경상수지는 수출의 호조와 해외여행 감소 등에 힘입어 11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9년 3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함.
-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, 물가상승 압력 상승, 성장 잠재력 약화, 소득재분배 문제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 - 2010년 우리나라 개인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인 146.1%를 기록해 일본이나 미국 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  -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4.5% 급등하면서 34개의 회원국 중 에스토니아(5.7%)에 이어 2위를 기록함.
  - 2010년 개인의 순저축률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및 소비 증가에 기인하여 1년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이는 향후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  - 경제성장률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59.2%로 전년대비 1.7%p 하락하면서 감소함.

(국민소득 2만 불 시대, 연합뉴스, 3/30)